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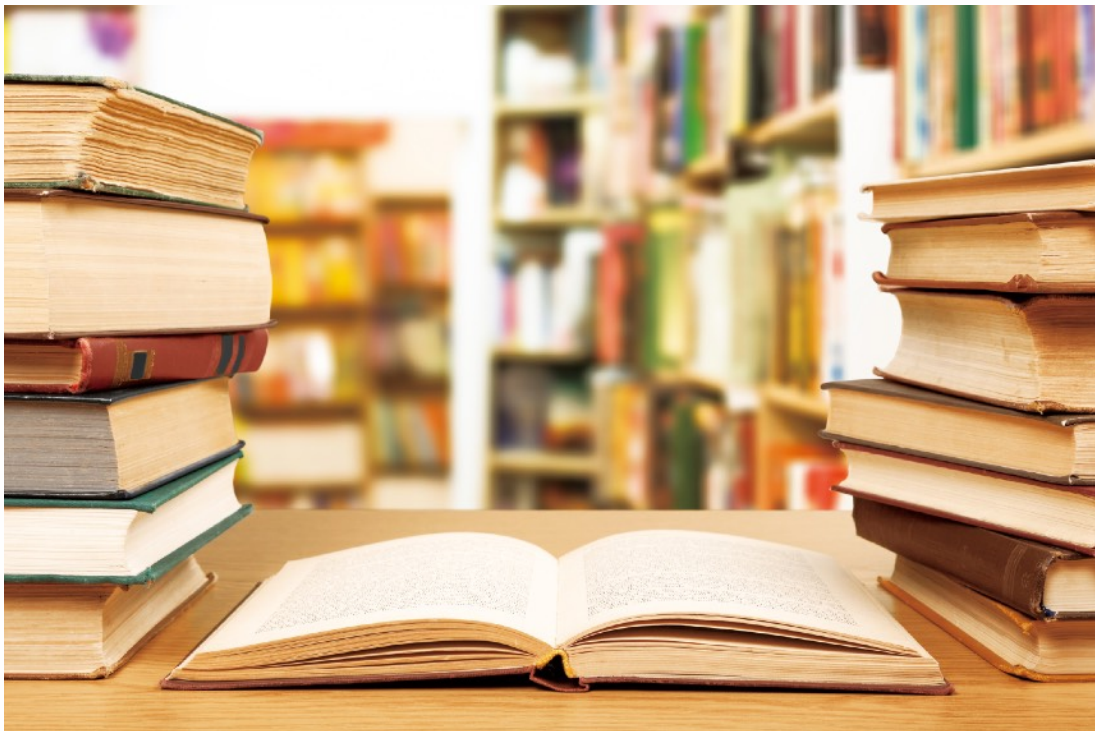
주요 내용

1. [빅데이터로 본 2021년 한국교회 4대 이슈]

2021년 한국교회,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여론이 가장 들끓어!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1) 신년 여론조사 대선후보 지지도 종합
- 2) 세계인의 새해 전망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2021년 한국교회,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여론이 가장 들끓어!

한국교회탐구센터는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함께 2019년부터 3년째 온라인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이슈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다. 2019년에는 ‘목회자 성범죄’, ‘전광훈 현상’, ‘동성애’, ‘명성교회’, ‘신천지’가 5대 이슈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신천지’, ‘전광훈 목사’, ‘목사 범죄’가 4대 이슈였다. 2021년에도 온라인에서의 한국 교회 4대 이슈를 분석했는데, 그 중 ‘코로나 집단감염’과 ‘방역 수칙 위반’ 2개가 이슈로 선정된 것을 보면 2020년에 이어 코로나의 여파가 여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목회자 범죄(성범죄)’도 이슈로 꼽혔는데 이 이슈는 3년째 빠지지 않고 올라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이슈였다.

하지만 2021년에 기독교가 사회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온갖 비난을 받게 한 가장 큰 이슈는 2건의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다. 한 사건은 일명 ‘정인이 사건’이라고도 불리웠고, 또 다른 사건은 ‘화성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으로 불리웠는데 이 두 사건은 교회에 대한 질타를 넘어서서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2021년 최악의 이슈였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스 126호에서는 2022년 새해 첫번째 주제로 지난 한해를 결산하려는 의미에서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2021년 한국교회 4가지 이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로 본 2021년 한국 교회 4대 이슈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개요

2021년 1년간 온라인에 게시된 본문 및 댓글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 주요 키워드를 부여, 데이터를 수집하여 한국 교회에 대한 온라인 여론 분석을 실시함

1. 조사 주체 : 한국교회탐구센터
2. 분석 기간 : 2020년 12월 ~ 2021년 11월(12개월)
3. 수집 채널 : 네이버카페, 네이버뉴스,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에 게시된 본문 및 댓글
4. 수집 키워드 : 기독교, 교회, 목사
5. 데이터 수집량 : 총 1,256,518건(중복 포함)
(기독교 221,863건, 교회 731,158건, 목사 303,497건)
6. 데이터 수집 : API를 활용한 웹 크롤링 방식(원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7. 자료 분석 : 목회데이터연구소
8. 자료 수집 : 주)골든플래닛(TousFlux)

• 용어해설

버즈량 : 특정 주제에 대한 웹상의 확산 지표

본문 수 : 특정 기간 내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글의 수

댓글 수 : 특정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수

조회 수 : 특정 게시글을 조회한 수

연관어 : 특정 주제에 대한 게시글(혹은 댓글)을 형태소로 쪼갠 후 유의미한 단어들을 추출한 언어

감성 분석 : 게시글 혹은 댓글의 본문을 형태소 단위로 구분하여 형태소별로 긍정, 중립, 부정 점수를 계산한 후 합산한 값. 즉 특정 이슈에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으면 긍정 글로,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으면 부정 글로 분류함.

01

2021년 한국 교회, 입양아 학대 등 다양한 이슈가 온라인 여론 주도

2021년 가장 큰 단일 이슈 : 입양아 학대

- ▶ 2021년 한 해의 가장 큰 단일 이슈는 ‘입양아 학대’라고 할 수 있다. 입양아 관련 이슈는 2019년과 2020년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베이비박스 관련 이슈였지 입양아를 직접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 벌어진 두 사건 모두 기독교인 양부모가 어린 입양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서 사망하도록 만든 사건으로 잔인성뿐만 아니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양부모가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었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을 부끄럽게 한 사건이었다.
- ▶ 1월 월간 버즈량은 131,956건으로 가장 높은 월별 버즈량을 기록하였는데,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안산Y교회 미성년자 착취 사건, IM선교회 집단감염, BTJ열방센터 집단감염 및 검사 비협조 등 주요 사건이 몰리면서 버즈량이 증가했다. 특히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은(48,931건)은 단일 이슈로는 최대 버즈량을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 ▶ 7월 월별 버즈량은 평균에 가까운 99,075건이었으나 또 다른 입양아인 허민영 학대 사망 사건이 47,902건으로 약 절반에 해당하는 버즈량을 기록했다. 이는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 이어 단일 이슈로는 두 번째로 높은 버즈량이었다.

목회자 범죄

- ▶ 목회자의 성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은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2019년 이후 해마다 끊이지 않는 유일한 이슈인데,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집단감염

- ▶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작년에는 집단감염이 주로 교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기독교 관련 기관(IM선교회, BTJ열방센터 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 ▶ 집단감염은 2월 이후에는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는데, 이는 집단감염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하여 각 교회에서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과 더불어 전체적인 집단감염이 다른 곳에서(학교, 실내 체육시설, 목욕탕,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단의 온라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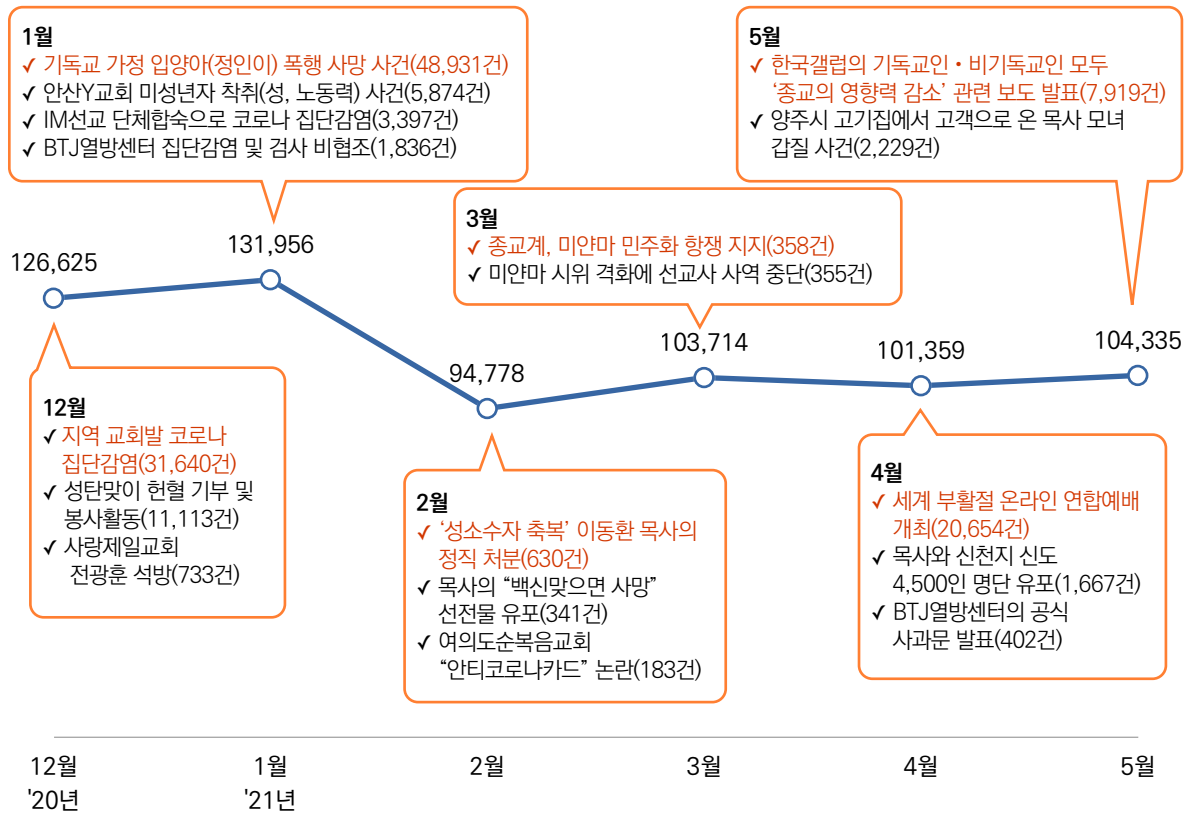
- ▶ 4월 ‘세계 부활절 온라인 연합예배 개최’ 버즈량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이슈는 구원파 계열인 박옥수가 개최한 행사였다. 이 행사를 홍보하는 글을 적극적으로 온라인에서 올리고 퍼날랐는데, 2019년에 ‘신천지’가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전체 버즈량에서 8%나 되는 비중을 차지한 것과 연관시켜 보면 이단 종파가 온라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 민주화 항쟁

- ▶ 3월 ‘미얀마 민주화 항쟁에 대한 기독교계의 지지’는 언급량은 많지 않지만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교회의 연대 정신을 잘 보여주는 이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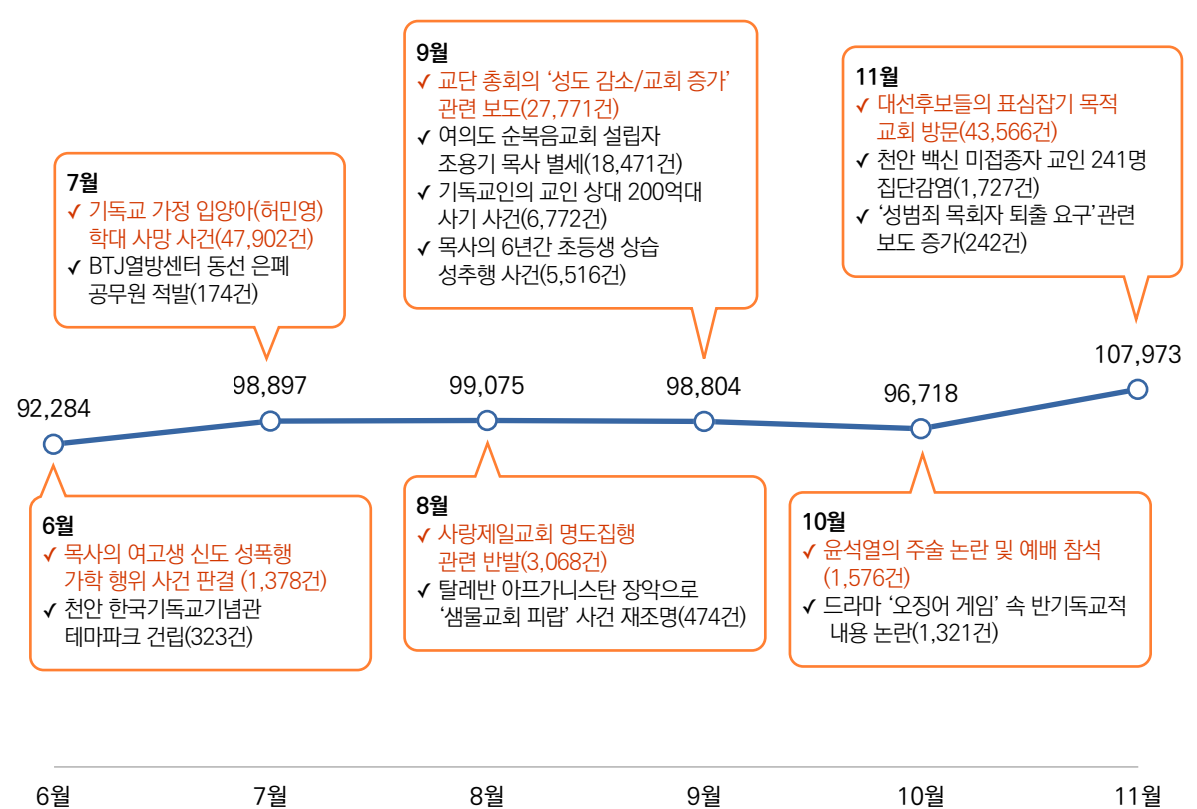
[그림] 2021년 월별 온라인 여론 추이 분석 (상반기 주요 이슈)

(단위 : 건)



[그림] 2021년 월별 온라인 여론 추이 분석 (하반기 주요 이슈)

(단위 : 건)



02

4대 이슈 도출

채널별 이슈 분포 분석



✓ 전체 통계량은 코로나 집단감염(170,368건) > 목회자 범죄(131,734건) > 방역수칙 위반(119,808건) > 입양아 학대(36,809건) 순
 *각 채널 전체 데이터에서 주요 이슈로 검색한 수치이며, 중복제거하지 않음(이슈 간 겹치는 데이터 있을 수 있음)
 **주요이슈 외에 일반적인 기독교적 단어 즉 예배, 성경, 나눔 등은 여기서 제외시켰음.



4대 이슈

순위	주요 이슈	비중(전체 대비)
1	코로나 집단감염	14%
2	목회자 범죄	11%
3	고의적 방역수칙 위반	10%
4	입양아 학대	3%

✓ 채널별로 전체 게시물 중 비중이 큰 이슈를 각각 도출 후, 종합 주요 이슈 도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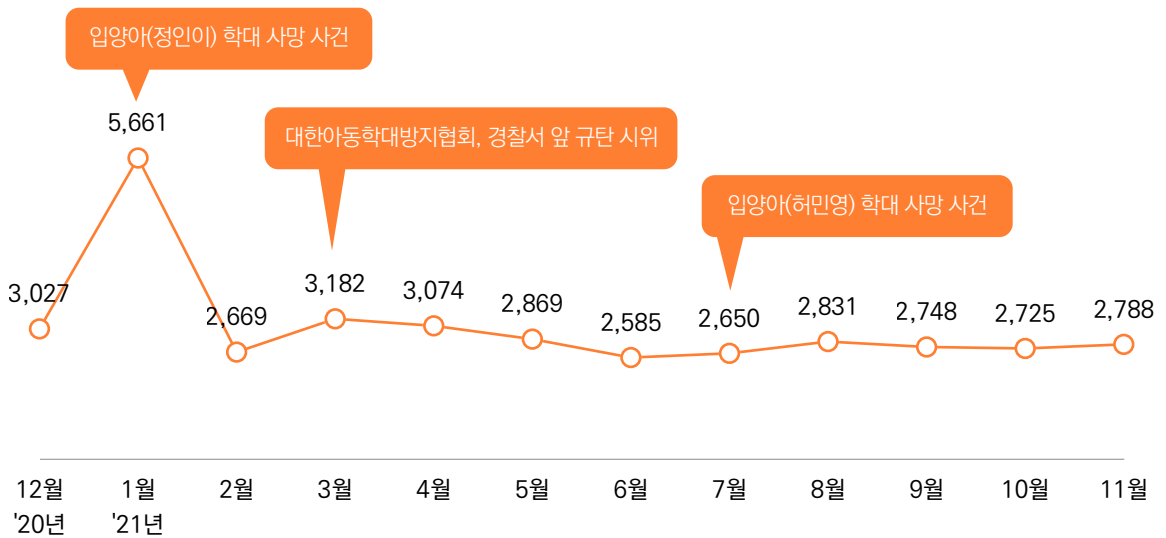
03

주요 4대 이슈 I - 입양아 학대 사건

- ▶ 2021년에는 기독교 가정 내 입양아 학대 및 사망 사건이 크게 두 차례 발생했다. 특히 1월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의 정도가 살인에 해당할 정도로 끔찍했던 점 △양부모가 모두 목회자 자녀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점 △양부모의 가족과 교회 관련자들이 가해 양부모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증가했다.
- ▶ 7월에는 일명 '제2의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허민영 사건'이 발생했는데, 역시 양부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기독교인 입양 가정에 대한 부정 여론이 심화되었다.

[그림] 입양아 학대 사건

(단위 : 건)



[입양아 학대 이슈 관련 댓글 중 발췌]

“수많은 아동 학대 중에도 정인이는 어려도 너무 어리고...
9개월 동안 힘들었을 아이 생각에 역장이 무너지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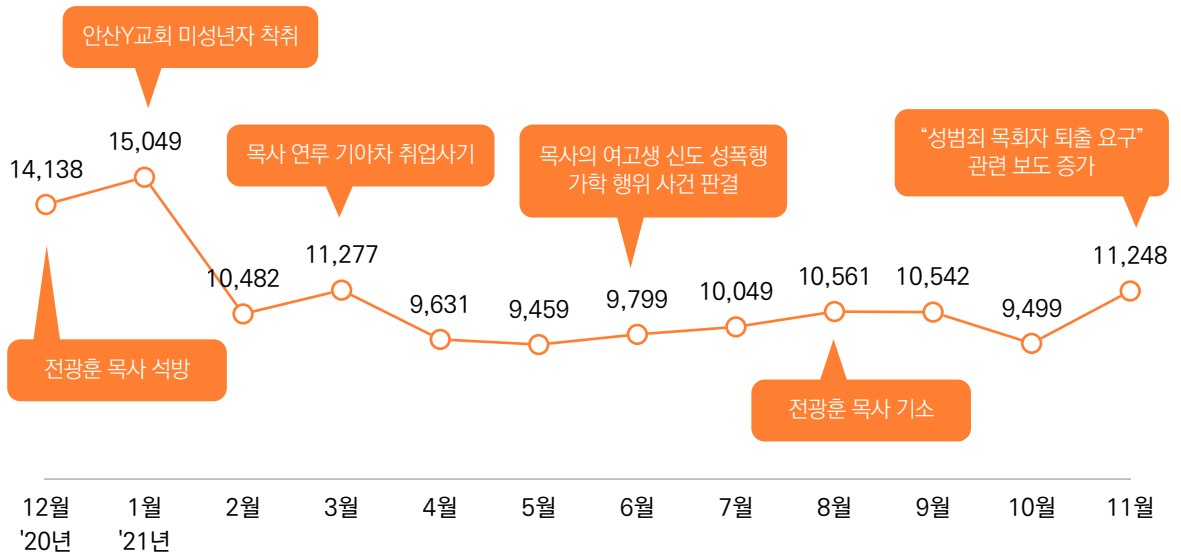
“온갖 악행 다 해놓고 죽기 전에 하나님만 잘 믿으면 천국 가나요?
현생에서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나요? 정인이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희생양이 되어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은
그럼 하나님도 모른 채 죽었으니 천국 못 가는 건가요?”

◎ 주요 4대 이슈 II – 목회자 범죄

- ▶ 1월 안산Y교회 미성년자 착취(성, 노동력) 사건을 비롯해, 3월 목사가 연루된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 사건, 6월 목사의 여고생 신도 성폭행 및 가학 행위 사건 판결 등 목회자가 미성년자 및 20대 여성 교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착취, 사기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공분을 일으켰으며, 이에 따라 '성범죄 목회자 퇴출 요구' 관련 보도가 증가했다.
- ▶ 목사의 성범죄는 관계적 힘의 우위에 선 목사가 그 힘을 이용하여 저항할 힘이 없는 어리고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분노와 질타를 받았다.
- ▶ 목사의 성폭력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어쩌다가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목사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고 기독교의 문제라고 비난받고 있다.
-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일부 목회자가 백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하였으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석방 및 기소 관련 보도도 많았다.

[그림] 목회자 범죄

(단위 : 건)



[목회자 범죄 이슈 관련 댓글 중 발췌]

“순진한 아이들 꼬셔서 인생 망치게 하고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네요.
교회 목사라는 탈을 쓰고 목사도 아닌 인간이 온갖 착취를 다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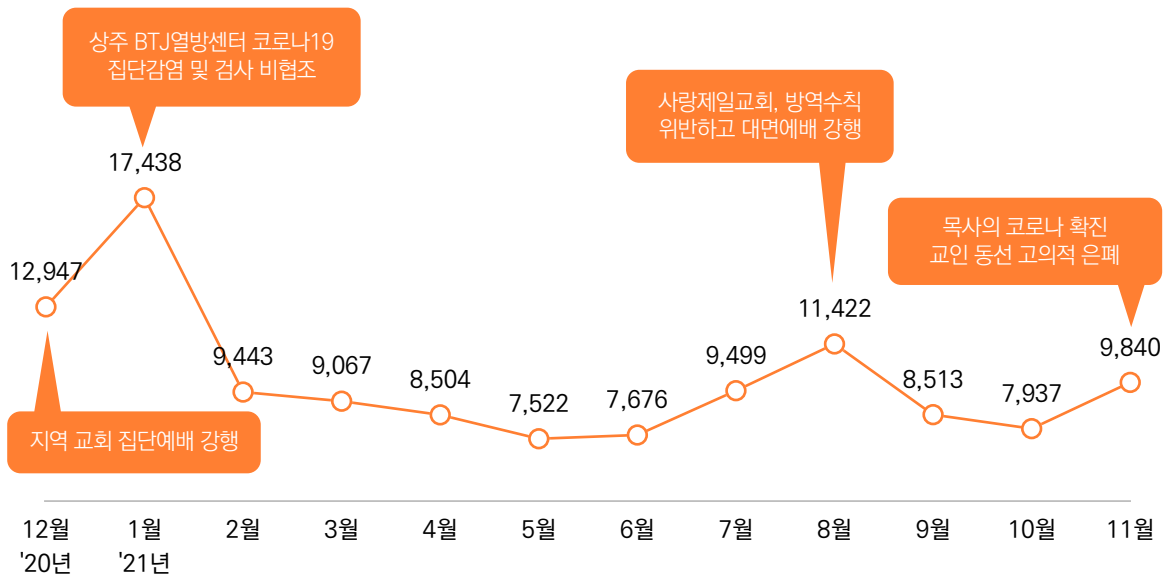
“목사의 꾸준한 범죄, 이 정도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닌지 합리적 의심”

◎ 주요 4대 이슈 III - 고의적 방역수칙 위반

- ▶ 사랑제일교회, 상주 BTJ열방센터, 지역 교회 등이 방역위법행위를 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2020년에는 교회에서 단순히 집단감염이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큰 사회적 이슈였으나, 2021년에는 의도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에 초점이 있다.
- ▶ 방역수칙 위반은 확진 사실, 확진자 동선 등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부터 예배와 관련된 당국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은 점차 단순 집단감염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기는 반면,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생긴 집단감염에는 더 큰 비난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 ▶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는 현장예배를 강행하고,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및 개천절 집회를 진행하여 코로나 확산 원인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 ▶ 반면 2021년 05월의 부정 비율의 감소는 전광훈 옹호 게시글이 의도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기인한다.

[그림] 방역수칙 위반

(단위 : 건)



[방역수칙 위반 이슈 관련 댓글 중 발췌]

“교회 강제 명령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천지가 이단이 아니라 기독교가 이단인거 같네요.
아이들 데리고 재롱잔치까지 했다는데...교회를 막아야 하는게 아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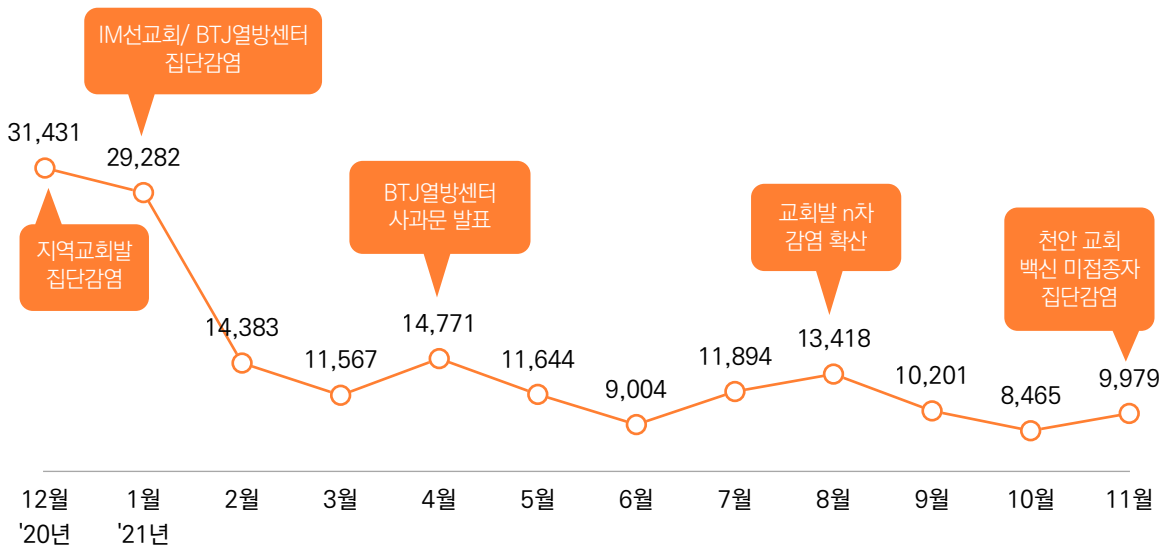
“하나님이 아무렴 이런 전염병으로 신앙을 판단하시진 않으실텐데...
어찌 저런 현혹하는 말들로 예배를 종용하는지...”

◎ 주요 4대 이슈 IV – 코로나 집단감염

- ▶ 2020년 12월 지역 교회발 집단감염, 2021년 1월 IM선교회/BTJ열방센터 집단감염, 8월 교회발 n차 감염 확산, 11월 천안교회 백신 미접종자 집단 감염 등 2021년에도 지역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 ▶ 교회발 집단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그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교회를 불신하는 것을 넘어서 분노를 느낀다는 여론이 많았다.
- ▶ 2020년 코로나 발생 초기에 교회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벌어지고 그 후에도 교회를 통한 코로나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켰다.
- ▶ 2020년 1월 일반 국민의 한국 교회 신뢰도가 32%였는데 1년 후인 2021년 1월에는 21%로 1년 사이에 무려 11%p가 감소했다. 이렇게 한국교회 신뢰도가 크게 줄어든 것은 코로나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넘버스 82호 참조할 것)

[그림] 코로나 집단감염

(단위 : 건)



[코로나 집단감염 이슈 관련 댓글 중 발췌]

“최근 확진자가 교회발이 많네요. 너무 화납니다, 교회발!”

“○○교회는 왜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 한마디가 없나요?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 하는지 아시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은 믿으면서 예배는
꼭 대면예배를 해야 믿음이 생기는 건가요?”

04

3년 연속 이슈, 목회자 범죄 - 최근 3년간 2021년 언급량 가장 많아

- ▶ 2019년~2021년 3년 연속 주요 이슈는 목회자 범죄가 유일했는데, 목사의 성범죄 사건이 지속 발생하여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신뢰 하락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19년 이후 최근 3년간 2021년이 목회자 범죄 언급량이 가장 많았다.
- ▶ 목회자 성범죄는 젊은 여성, 여학생 및 아동 등 교회에서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서 사회적 분노와 비난이 쏟아졌다.
- ▶ 2020년에는 그루밍 성범죄가 주요 이슈였다면, 2021년에는 성범죄가 엽기적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더 비난을 받았다.
- ▶ 1월 안산Y교회의 목사 부부가 20대 여성 3명으로부터 고소당했는데, 목사는 이들을 초등학교때부터 20년 이상 성착취를 한 것은 물론 그 행위를 동영상 촬영했고, 돈을 벌어오게 해서 노동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 현금하지 못하면 서로를 때리거나 얼굴에 똥을 바르게 하는 등의 행각을 저질렀다.
- ▶ 6월에는 여고생을 성폭행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소변을 먹이는 등 믿기 힘든 사건도 일어났다.
- ▶ 2019년과 2020년과 2년 연속 이슈는 신천지와 전광훈 목사였다. 신천지는 2019년에는 포교 활동으로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 초기 확산의 주범으로 이슈화되었다. 그것을 계기로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신천지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
- ▶ 전광훈 목사는 2019년에는 반 문재인인 기수라는 정치적 상징으로 이슈가 되었다면, 2020년에는 코로나 집단 확산 집회를 강행하면서 사회적 비난을 크게 받았다.
- ▶ 2020년과 2021년의 동일 이슈는 집단감염이었는데, 교회발 코로나 감염 확산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비판 여론이 지속되었다.

[표] 2019년 ~ 2021년 주요 이슈 비교 분석

	주요 이슈	비중(전체 대비)
2019년	신천지	10%
	동성애	3%
	전광훈 목사	2%
	명성교회 세습	1%
	목회자 범죄	1%
2020년	코로나19 확산	21%
	신천지	6%
	전광훈 목사	6%
	목회자 범죄	4%
2021년	코로나19 집단감염	14%
	목회자 범죄	11%
	방역수칙 위반	10%
	입양아 학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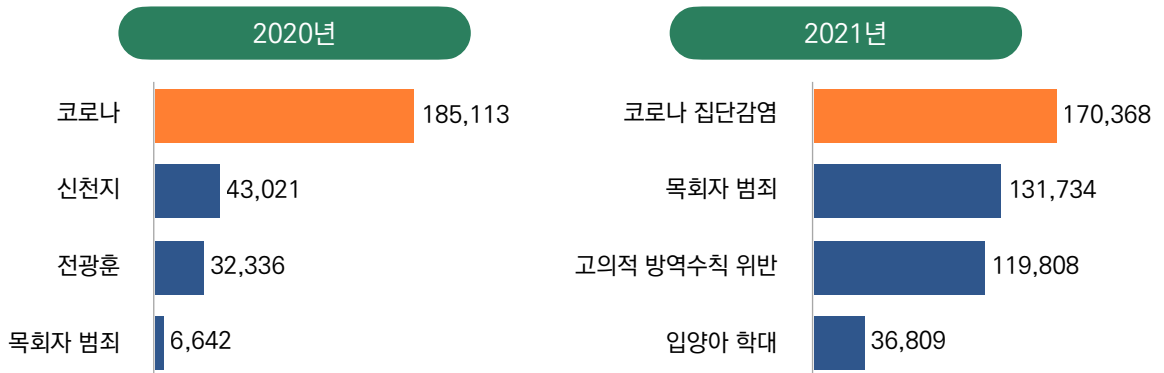
05

한국교회 온라인 여론 상 가장 큰 이슈, ‘코로나 집단 감염’!

- ▶ 4가지 이슈 가운데 온라인 여론 상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 집단 감염’(17만 건)이었다.
- ▶ ‘코로나 집단 감염’은 2020년에는 압도적 이슈였는데, 2021년에는 ‘코로나 집단 감염’ 외에도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었다. 특히 목회자 범죄(성폭력 등)가 2020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 ▶ 또한 2021년에는 단순한 코로나 집단 감염을 넘어서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거부하는 일들도 일어났다는 점에서 2020년과 차이가 있다.

[그림] 이슈별 본문 수

(단위 : 건)



*수집채널 : 네이버 뉴스,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

◎ ‘고의적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관심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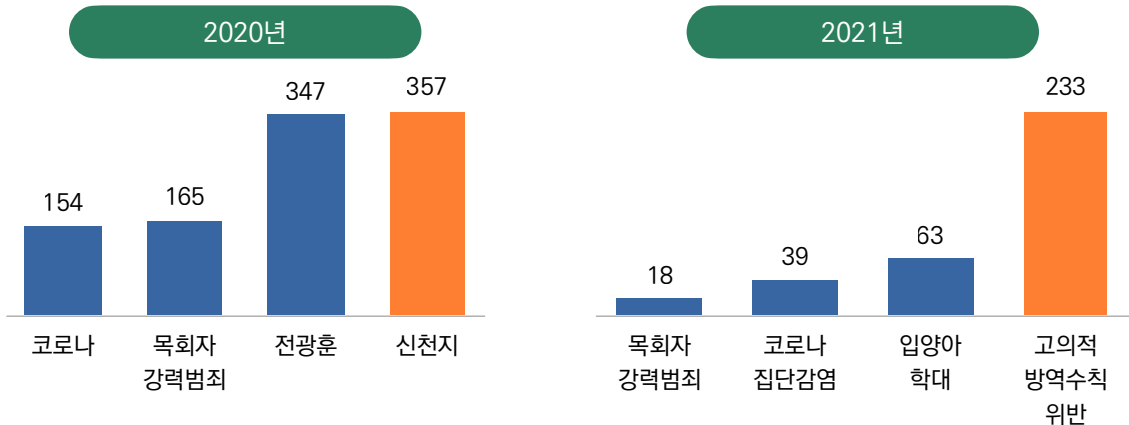
- ▶ 일반인들의 관심도를 볼 수 있는 본문수 대비 조회수 분석에서는 ‘고의적 방역수칙 위반’이 본문 1건 당 조회수 233건으로 나머지 이슈에 비해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다.
-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단순 집단감염 보다는 교회가 의도적/비의도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관심도(조회 수/본문 수)

(단위 : 건)

[그림] 관심도(조회 수/본문 수)

(단위 : 건)



*수집채널 : 네이버 카페

◎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여론이 가장 들끓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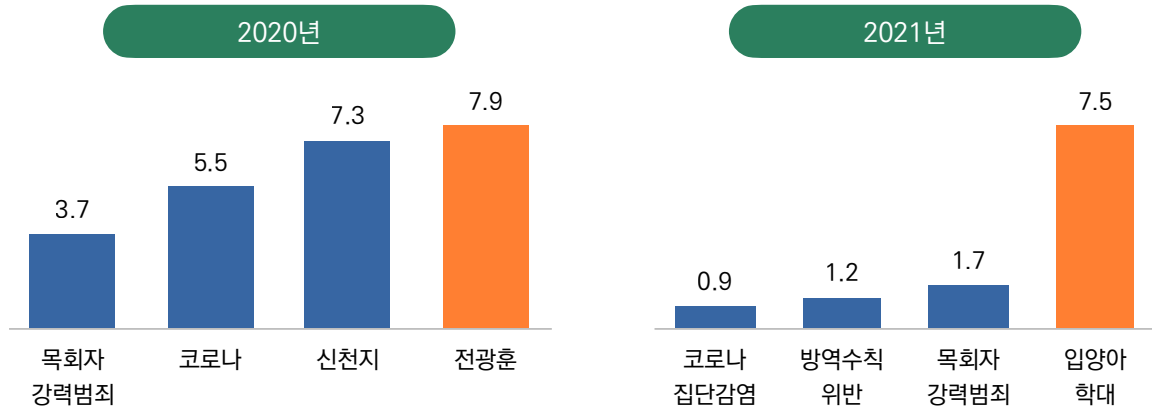
- ▶ 일반인들의 참여도를 볼 수 있는 본문수 대비 댓글수 분석에서는 ‘입양아 학대’가 본문 1건당 댓글수 7.5건으로 나머지 이슈에 비해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다.
- ▶ ‘입양아 학대’ 사건은 단순 버즈량은 가장 낮았으나 참여도에서 1위, 관심도에서 2위를 차지하여 2021년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참여도(댓글 수/본문 수)

(단위 : 건)

[그림] 참여도(댓글 수/본문 수)

(단위 : 건)



*수집채널 :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2020년 한국 교회 온라인 여론은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무리되었다면, 2021년에는 코로나가 여전히 큰 이슈였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 외의 이슈로 다양해졌다. 그 가운데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킨 것은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었다.

첫 번째 사건은 1월 초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등을 통해 전국을 경악시킨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양부모가 생후 16개월 아이를 학대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숨을 거둔 사건이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사망 폭행 이전에도 잦은 학대가 있었는데, 공소장에는 총 8가지의 폭행 혐의가 적시되었다. 아이가 사망하기 직전 5개월 사이에 학대가 집중되었고, 특히 마지막 3번째 아동 학대 신고가 이루어진 2019년 9월 이후부터 학대의 강도가 더 세졌다고 한다.

정인이 사건이 잊혀질 때쯤인 2021년 5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당시 2세였던 여아(허민영)가 자신의 양부에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뺨을 여러 차례 구타당해 뇌의 3분의 2 이상이 손상되어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실려 왔다. 아이는 수술을 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2021년 7월 11일에 2세의 어린 나이로 사망했다. 이 사건은 병원이 아이의 죽음을 아동 학대의 결과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혈연에 의한 가족 관계를 중시하므로 입양을 꺼리는 문화이다. 국내 입양보다 해외 입양이 더 많았는데 2007년부터는 국내 입양아가 더 많아져 2019년 현재 국내 입양과 해외 입양 비율이 55 대 45 정도가 되었다. 입양하는 경우도 순전히 입양을 원해서 하는 부모는 소수이고, 80% 이상이 난임과 불임을 경험한(즉, '되도록이면' 자기 자식을 낳으려 했지만 하다가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입양을 택한)사람들이다.

그러면 앞의 두 가정은 어떤 환경이었을까? 정인이 가정에는 이미 친딸이 있었고, 허민영 가정에는 친자녀가 4명이나 있었다. 우리나라 입양 가정의 일반적

행태와 달리 두 가정은 친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입양했다는 점은 칭찬받을만 하다. 또한 두 자녀 입양이 선한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공통점도 있다. 정인이 양부모는 결혼하기 전 교체할 때부터 입양을 계획해서 정인이를 입양했으며, 민영이 양부모는 부부가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민영이가 안쓰러워서 입양했다고 진술했다.

선한 마음으로 입양을 계획하고 결정한 양부모들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을까? 입양 때 그들의 선한 마음은 가짜일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 행동일까? 반려견이 귀여워서 입양했다가 싫증이 나가거나 버거우면 파양하는 것처럼 선한 마음이 변질된 것일까? 한 보도에 따르면 정인이 양부모는 입양 사실을 주변에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이 입양했어요'라고 먼저 알리는 행동을 자주 했다고 한다. 이 '자랑'에는 자신의 선함을 과시하여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욕망 가운데서 인간의 이중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은 있으나,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자기 희생의 노력은 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우선한다는 데서 인간의 이중적 모습이 나타난다. 종교적 행위, 선한 행위가 오히려 욕망의 도구가 되어 자신을 찌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 속에 있는 이중성을 발견하는 자기 성찰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자 한다면, 이는 기도할 때에 큰길 모퉁이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금식할 때에 일부러 금식하는 티를 내는 사람들처럼 되기 쉽다. 인간의 자기 이중성을 발견하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삶! 이 지점이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도전받고 있는 공적역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스」 95호(2021. 5. 14), 14쪽

2)나무위키, '입양'(<https://namu.wiki/w/%EC%9E%85%EC%96%91>)

3)그것이 알고 싶다 비하인드, '정인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https://www.youtube.com/watch?v=n67jYELlp_g)

- 1.[신년 여론조사 대선후보 지지도 종합]
- 2.[세계인의 새해 전망]

01

2022년 신년 여론조사 대선후보 지지도 종합 - 이재명후보가 윤석열후보 대비 8.2%p 우세!

- ▶ 2022년 새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일 것이다. 새해 첫날 주요 언론에서 일제히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중 전화조사 방법을 사용한 12개 조사기관의 대선후보 지지도를 모두 합하여 평균값을 산출, 아래의 표로 담아 보았다.
- ▶ 여론조사 지지율 평균치를 보면 이재명 36.9%, 윤석열 28.7%, 안철수 8.3%, 심상정 4.3% 순으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8.2%p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층 비율도 18.5%에 달해 5명 중 1명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 ▶ 대부분의 조사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고 있었으며, 윤석열 후보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부동층의 경우 20대 청년들은 30%~60%대, 30대는 20%~40%대까지 높아, 향후 후보별 이들 MZ세대 공약이 이번 선거의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표] 주요 언론사별 신년 여론조사 대선후보 지지도(12개 언론 평균치, 전화조사방법)

(단위 : %)

언론사	조사기관	결과							조사방법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기타	없다/무응답	계	
1.조선일보	칸타코리아	32.4	31.4	6.2	3.7	4.5	21.9	100.0	유선 10.9% 무선 89.1%
2.중앙일보	엠브레인 퍼블릭	39.4	29.9	10.1	5.7	2.3	12.5	100.0	유선 15.7% 무선 84.3%
3.동아일보	리서치앤 리서치	39.9	30.2	8.6	4.3	3.9	13.0	100.0	유선 20% 무선 80%
4.한국일보	한국리서치	34.3	28.7	9.0	4.5	2.9	20.6	100.0	유선 8.9% 무선 91.1%
5.SBS	넥스트리서치	34.9	26.0	7.8	2.6	2.5	26.3	100.0	유선 14% 무선 86%
6.세계일보	리서치앤 리서치	35.5	30.9	10.3	4.1	4.8	14.4	100.0	유선 21% 무선 79%
7.KBS	한국리서치	39.3	27.3	8.1	3.2	4.1	18.0	100.0	무선 100%
8.MBC	(주)코리아 리서치	38.5	28.4	8.4	4.0	1.8	18.9	100.0	무선 100%
9.JTBC	(주)글로벌 리서치	37.0	28.1	9.1	3.2	1.5	21.1	100.0	무선 100%
10.서울신문	한국갤럽	36.8	30.8	9.3	6.6	6.2	10.3	100.0	무선 100%
11.CBS	서더포스트	35.8	25.2	6.0	4.1	3.1	25.9	100.0	무선 100%
12.전국지표조사 (NBS)	4개메이저 조사회사	39.0	28.0	6.0	5.0	2.0	19.0	100.0	무선 100%
평균		36.9	28.7	8.3	4.3	3.3	18.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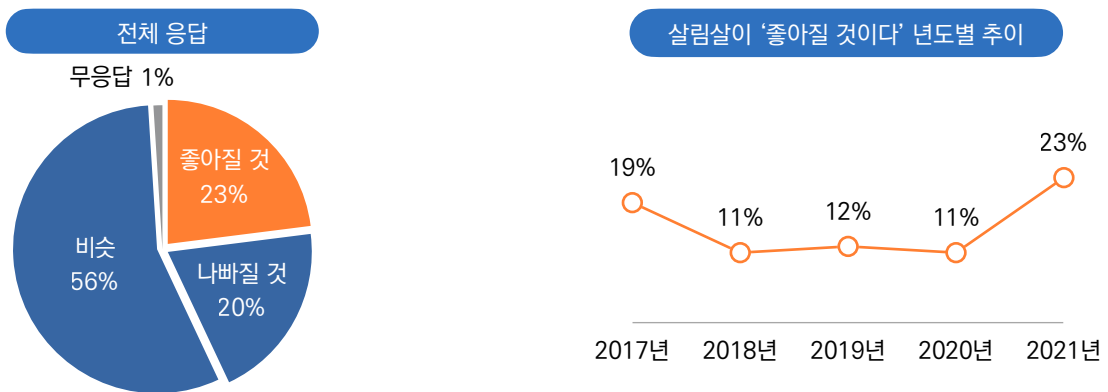
* 2021년 12월 말 조사, 전화면접방법,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 표본오차 : 각 조사당 ±3.1%(95%신뢰수준)

01

새해 우리집 살림살이 '좋아질 것', 작년보다 두 배 가량 높아!

- ▶ 한국갤럽이 작년 11월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새해 가정 살림살이 전망을 물은 결과, '좋아질 것' 23%, '나빠질 것' 20%, '비슷' 56%로,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 인식이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 인식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 인식은 작년의 11%보다 무려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약해지면서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라는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022년 새해 가정 살림살이 전망



*자료 출처 : 한국갤럽 '2022년 새해전망, 주관적 행복감', 2021.11.28., (전국 만19세 이상 1,500명, 일대일개별면접조사, 2021.11.05.~28.)

◎ 한국인의 새해 전망, 세계 평균보다 비관적!

- ▶ '개인적인 삶'에 대한 새해 전망을 세계 44개국인들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 인식이 우리나라는 25%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계평균 38%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44개국 중 34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표] 2022년 새해 개인의 삶 전망(세계 44개국 조사) - '올해보다 좋아질 것'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1.인도네시아	76%	12.콜롬비아	51%	22.이라크	37%	33.세르비아	26%
2.알바니아	70%	13.에콰도르	50%	23.몰도바	37%	34.한국	25%
3.나이지리아	68%	14.스페인	50%	24.영국	37%	35.우크라이나	25%
4.아제르바이잔	62%	15.케냐	47%	25.호주**	37%	36.아프가니스탄	24%
5.베트남	59%	16.페루	44%	26.아르메니아	36%	37.러시아	23%
6.멕시코	59%	17.필리핀	44%	27.스위스	36%	38.태국	23%
7.카자흐스탄	58%	18.파키스탄	43%	28.홍콩	35%	39.터키	22%
8.코소보	58%	19.루마니아	42%	29.일본	35%	40.북마케도니아	21%
9.인도	54%	20.미국	40%	30.독일	32%	41.체코	20%
10.말레이시아	53%	21.아르헨티나	38%	31.보스니아	31%	42.폴란드	17%
11.가나	52%			32.오스트리아	27%	43.불가리	15%
						44.이탈리아	14%

*한국출처 : 한국갤럽 '2022년 새해전망, 주관적 행복감', 2021.11.28., 전국 만19세 이상 1,500명, 일대일개별면접조사, 2021.11.05.~28.

**세계출처 : 갤럽 인터내셔널 EOY, 세계 44개국 성인 총 41,560명, 전화/온라인/면접조사, 2021.10~12.(호주는 전체 평균 미포함)

◎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 57%, 세계 평균 수준!

- ▶ 본인 삶에 대해 얼마나 행복한지 주관적인 행복도를 측정한 결과, 한국인은 '행복하다' 57%, '행복하지 않다' 13%, '어느쪽도 아니다' 28%로 행복도는 57%로 나타났다.
- ▶ 세계 44개국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한국은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장 주관적 행복도가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 카자흐스탄이며, 가장 행복도가 낮은 나라는 홍콩과 가나로 조사됐다.

[그림] 2022년 주관적 행복도(세계 44개국 조사) - '매우+약간 행복하다'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1.콜롬비아	83%	12.인도네시아	65%	22.미국	56%	33.체코	49%
2.카자흐스탄	81%	13.일본	65%	23.북마케도니아	55%	34.몰디비아	49%
3.에콰도르	78%	14.멕시코	65%	24.세르비아	55%	35.루마니아	49%
4.말레이시아	78%	15.파키스탄	65%	25.폴란드	54%	36.독일	48%
5.나이지리아	78%	16.페루	65%	26.태국	53%	37.아프가니스탄	45%
6.필리핀	76%	17.인도	61%	27.오스트리아	52%	38.불가리	45%
7.알바니아	75%	18.호주**	59%	28.스페인	52%	39.터키	42%
8.아제르바이잔	74%	19.아르헨티나	58%	29.영국	52%	40.러시아	41%
9.코소보	74%	20.스위스	58%	30.우크라이나	51%	41.아르메니아	39%
10.케냐	71%	43개국 평균	57%	31.이라크	50%	42.이탈리아	39%
11.베트남	66%	21.한국	57%	32.보스니아	49%	43.케냐	37%
						44.홍콩	37%

*한국출처 : 한국갤럽 '2022년 새해전망, 주관적 행복감', 2021.11.28., 전국 만19세 이상 1,500명, 일대일개별면접조사, 2021.11.05~28.

**세계출처 : 갤럽 인터내셔널 EOY, 세계 44개국 성인 총 41,560명, 전화/온라인/면접조사, 2021.10~12.(호주는 전체 평균 미포함)

***4점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행복' 비율임.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 미발행](#)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 58호\(2021년 12월 5주\) -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정당지지도 등](#)

[5년간의 진보 우위 무너졌다... “나는 중도층” 34% 최다](#)

조선일보_2021.12.28.

[\[JTBC 신년 여론조사\] 이재명 37%, 윤석열 28.1%, 안철수 9.1%](#)

JTBC_2022.01.03.

◎ 사회 일반

[20년 전 9시 뉴스 속 1인 가구, 지금과 다른 점은?](#)

KBS_2021.12.26.

[지난해 육아휴직자 17만 명...아빠 휴직자 처음 20% 넘어](#)

KBS_2021.12.21.

["너 여시해?" 이말에 입담는다...현실엔 '육설전쟁' 없는 이유](#)

중앙일보_2021.12.27.

[‘돌싱글즈’ 인기 이유 있었네 작년 결혼 5건 중 1건은 재혼](#)

국민일보_2021.12.27.

[국내 주식부자 10위권서 4명 바뀌어](#)

동아일보_2021.12.29.

[팬데믹 2년... 오미크론 출현 한달만에 세계 신규확진 34% 급증](#)

동아일보_2021.12.28.

[배달 노동자 47% “사고 경험”...배달 재촉 속 ‘교통법규 위반’이 원인](#)

경향신문_2021.12.26.

["KBS·YTN, 한국인이 즐겨보는 뉴스채널 공동 1위"](#)

연합뉴스_2021.12.28.

[당근마켓, 이웃간 중고거래 1억5천만 건...작년보다 30% 증가](#)

연합뉴스_2021.12.28.

[10명 중 7명 "가장 위협인 주변국은 중국"...진보·보수 비슷](#)

매일경제_2021.12.29.

[“우리나라 가는 방향 바르지 않다” 74.1%](#)

문화일보_2022.01.03.

◎ 청년

[2030 ‘아트테크’ 열풍... 올해 미술품 공동구매 500억 넘어](#)

동아일보_2021.12.30.

[대졸 3명 중 1명 미취업... 취업을 2011년 내 최저](#)

국민일보_2021.12.28.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인구

[대한민국이 늙어간다...전국 시군구 42%,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

연합뉴스_2021.12.26.

[10월 출생아 2만1천명 역대 최저...올들어 인구 3만3천명 감소](#)

연합뉴스_2021.12.29.

◎ 경제

[코로나 한파에 소상공인 87만명 사라졌다...영업이익 반토막](#)

연합뉴스_2021.12.28.

[전후 폐허서 눈부신 성장...무역 1조2596억달러 세계 8위](#)

매일경제_2022.01.02.

[중소 44% “올해 자금사정 더 나빠졌다”](#)

동아일보_2021.12.30.

[기업 85%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는 데 동참 의향”](#)

연합뉴스_2021.12.28.

◎ 건강

[韓 흡연을 떨어졌는데, 폐암이 위암 앞질러...“국민 10명 중 4명 평생 한번은 암 걸린다”](#)

조선비즈_2021.12.29.

[남성은 폐암, 여성은 유방암 최다... 암 생존율은 71%로 올라](#)

조선일보_2021.12.30.

[성인 10명 중 4명 코로나 이후 “체중 늘어”...1인당 평균 3.5kg 증가](#)

동아일보_2021.12.29.

[성인 4명 중 1명 ‘정신건강 문제’ 경험했다](#)

경향신문_2021.12.26.

◎ 기독교

[믿을만한 보육 ... '둘째 출산' OK](#)

한국기독교공보_2021.12.16.

[미국의 세속화, 무종교인 증가, 개신교인 추락... 종교 떠나는 사람들](#)

오마이뉴스_2021.12.27.

[“선교도 디지털시대”... 미국 교회들, 빅데이터로 새 신자 찾기](#)

국민일보_2021.12.28.

◎ 이슈큐레이션

[“양극화와 기후변화, 향후 30년간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

국민일보_2022.01.03.

[가족이 삶의 1순위가 되려면](#)

매일경제_2022.01.03.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기획기사1 [MZ세대 한국교회를 말하다(국민일보)]

[1. MZ세대 기독교인 희망을 찾다](#) _2022.01.03.

[2. 현재와 미래 메타버스 만남](#) _2022.01.01.

◎ 기획기사2 [한국인의 질병 지도가 바뀐다(조선일보)]

[1. 속쓰림 주범, 요즘은 위궤양 아닌 스트레스](#) _2021.10.28.

[2. 큰 통증 없이 서서히... '은둔형 심근경색'이 늘고있다](#) _2021.11.03.

[3. 갑작스러운 복통과 구토... 우리 부모님도 혹시 게실염?](#) _2021.11.10.

[4. 삶 힘들게 하는 질병 1위 당뇨... 천식은 줄고 치매·관절염 늘어](#) _2021.11.17.

[5. 발바닥 찢어지는 듯... 족저근막염 환자 10년새 3배로](#) _2021.11.24.

[6. 귓전에서 바람소리 들린다고요? 그럼 당신도 이 증상](#) _2021.12.15.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행한빛교회, 만나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영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불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중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고영관, 고영수,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노석,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장민, 송섭, 송으뜸, 신명자,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우애라, 유성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이경만,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우성, 장형철, 전응림, 전지영,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준, 정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차용현,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준, 최준혁, 최현갑, 한재웅,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 황태기(가나다순)

| 신규 후원 |

토평교회, 정기목, 장성은, 남기환, 엄정석, 박건호, 계만석, 윤영조, 이국희, 이요셉, 장성진, 천성환, 장재영, 제주연동서부교회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교육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 연구소 소식 |

- **목회데이터연구소와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교육원과**
 지난 2021년 12월 30일 양기관의 업무협약을 위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체결식을 통해 두 기관이 더욱 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 **목회데이터연구소가 한국교회에서 데이터 중심의 목회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12월 31일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 2022년 새해를 맞아 [넘버즈]가 이번주 126호부터 새로운 디자인으로 선을 보입니다.